



김호신의 피렌체 여행기  
영원한 봄을 찾아서

45. 굿 바이, 피렌체

5월 16일 아침. 8시에 택시가 올 예정이다. 택시를 불러 주는 것은 에어 비엔 비 주인들의 의무가 아니지만 손님들에게 해 주는 서비스라고 해서 어제 일커에게 부탁했다. 겨우 2시간 정도 자는 등 마는 등 해서 피곤했지만 일찍 일어나 서둘러 샤워를 하고 R과 함께 숙소를 치웠다. 물건을 모두 제자리에 놓고, 쓰레기와 사용한 타일 등을 모아서 한곳에 두고, 침대를 잘 정리한 다음 커튼도 우리가 들어 올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닫았다. 냉장고와 주방도 깨끗이 치웠다.

집을 다 썼다. 4박 5일 편하게 잘 지낸 아파트에 인사를 하고 일커가 일러 준 대로 열쇠를 현관 테이블에 놓은 다음 밖에서 문을 닫으니 딱딱하고 잠긴다. 대리석 계단을 내려 와 골목길을 나왔다. 피렌체에서 우리 집이었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 서운해 이제 익숙한 골목길을 둘러 보았다. 피렌체는 아침을 맞아 부산하게 깨어 나고 있는 중이었다.

8시 정각에 택시가 왔다.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기사 아저씨였다. 일커가 말해 놓아서 공항으로 가는 것을 아니까 우리엔 묻지도 않고 짐을 트렁크에 적적 실었다. 우리가 뒷좌석에 앉으니 '안디아모! (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부르릉 떠났다. 첫날 왔던 것처럼 단테의 산타 트리니타 다리를 지나 플로렌스 중심가를 벗어나며 공항으로 향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일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깨끗이 치워 놓고 가셨나요? 마치 그동안 아무도 묵지 않았던 것처럼 그대로네요. 에어 비엔 비 웹사이트에 고객 평가 단점으로 올리겠습니다. 저의 집에 다시 오신다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깜짝 놀랐다. 묵었던 집을 치워 놓고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편안하고 아늑한 아파트를 제공해 준 일커에게 우리도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피렌체의 중심을 흐르는 아르노 강과 멀어지면서 도시의 경관은 점점 현대적으로 바뀌어 갔다. 변해가는 피렌체의 모습을 택시 창문을 통해 바라 보면서 우리는 방금 떠나온 그 중세의 도시가 꿈이었던가, 하고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자처럼 미끄러져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상의 현실이었던 것 같기도 했다. 정녕 그렇다면 진실로 아름다운 꿈이었고, 완벽한 가상현실이었다.

페레톨라 공항 도착. 택시에서 내리면서부터 소매치기 당했던 기억 때문에 무척 긴장했다. 그러나 짐을 잘 체크인하고 보딩 티켓도 잘 받았다. 탑승 게이트가 발표 될 때까지 공항 카페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했다. 프로슈토와 모자렐라 샌드위치, 오렌지주스, 그리고 에스프레소. 샌드위치 빵에는 커다란 올리브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다.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를 떠나는 작별 인사로 한 잔 마셨다. 쓰고 강렬했다.

런던 행 벨링 에어라인은 거의 텅텅 비어 있었다. R과 나는 비행기가 이륙하자 떨어지는 아르노 강과 피렌체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부드러운 토스카나의 언덕들과 은빛으로 빛나는 아르노 강이 점점 멀어졌다. 우리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까지 밑을 내려다 보았다. 굿 바이, 피렌체! 그리고는 둘 다 잠이 들어 버렸다.

기내 방송에 잠이 깨니 어느새 영국에 도착해 있었다. 떠날 때와 같이 루턴 공항에 도착.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패스포트 컨트롤을 빠르게 통과했다. 우리 입국 심사관은 나이가 지긋한 중년 아저씨. 우리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LA라고 대답하니, '아, You are California girls!' 하며 자기가 35년 전에 축구시합을 하러 샌디에이고에 갔던 이야기를 한다. 그때의 눈부신 태양과 새파란 하늘, 따뜻한 기후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때 예쁜 캘리포니아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해 미국에 눌러앉았다면 자기 인생이 지금 어땠을까 아직도 생각해 본다. 그러면서 '아, 물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하고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무사히 통과해 집을 찾아 나오는데 R이 말했다. '엄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가끔 만약 내가 그때 그랬다면 하고 생각해 본다는 것이 참 흥미롭네.' 나는 풋풋한 스무 살 딸에게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한 동경과 그리움이란다.'

루턴 공항에서 나와 런던으로 기차를 타고 간다. 루턴 파크웨이에서 떠난 기차는 런던 세인트 팬크라스 역을 향해 조용히 미끄러지듯 떠났다. 기차에서 쉬면서 R은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엄마, 아이 러브 유' 라고 속삭였다. 딸의 빛나는 검은 눈동자를 내려다보는데 이 여행이 끝나고 있다는 아쉬움이 아련히 밀려 왔다. 기차 창으로 내다 보이는 푸른 영국은 보슬비에 폭 젖어 있었다.

봄맞이 행사

3월 1일부터



- \* 남자 컷 \$ 15
- \* 여자 컷 \$ 25
- \* 펌 \$ 50
- \* 염색 \$ 50
- \* 헤나염색 \$ 55
- \* 셋팅펌 \$ 80 up
- \* 매직펌 \$ 100up

\* 예약 해주세요 \*

Tel. 714.356.7042

DIVA Hair Salon 1180 S. Idaho St  
디바 헤어살롱 La Habra, CA 90631

JOY 핸디맨 & 플러밍



물  
새  
요  
:

연락주세요.

24  
시간

제이킴

714.249.5469

칠포 해물탕  
CHIL PO KOREAN RESTAURANT



해물탕



20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

모든 소주류 \$4.99

가족모임 /골프후 회식을 위한 대, 소 연회석 완비



아구찜



황실보쌈

돼지불고기 쌈밥  
불고기 쌈밥  
생선 쌈밥

항상 칠포 해물탕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62.809.0057 17303 Pioneer Blvd, Artesia, CA 90701